

여성문제 읽을거리 22·23 합본호
1997년 3월 27일 발행

편견깨기-새나기를 위한 여성학

당연한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의 세계가 항상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물론의 세계 또한
정녕 나를 좋아하진 않겠지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승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승을 걸어라
나날이 다가오는 미래의 점령군,
하루종일 발이 꺾꺾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생사불명, 힘들어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물론의 미래가 콘크리트로 굳기 전에
당연의 감옥이 온 세상 끝까지 먹어치우기 전에
당연과 물론을 양손에 들고
아삭아삭 내가 먼저 뜯어먹었으면.

-김승희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11中

집중!!
96/97학번(남녀노소)의
운명의 방향!



지금
 당신의 운명의 나침반이
 “정정현 편집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나침반을 따라 오세요!

☎ 전화상담 : 760-1417

➡ 방문상담 : 학생회관 3층 “정정현 편집실”

정/정/현/편/집/위/원/회

여성문제 읽을거리 22·23 합본호

1997년 3월 27일 발행

편견깨기-새내기를 위한 여성학

당연한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의 세계가 항상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물론의 세계 또한
 정녕 나를 좋아하진 않겠지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나날이 다가오는 모래의 점령군,
 하루중일 발이 꺾꺾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생사불명, 힘들여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물론의 모래가 콘크리트로 굳기 전에
 당연의 감옥이 온 세상 끝까지 먹어치우기 전에
 당연과 물론을 양손에 들고
 아삭아삭 내가 먼저 뜯어먹었으면.

-김승희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II 中

목 차

I. 앞짜투리

II.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III. 여성학에 대한 편견깨기

IV. 학내외 여성운동단체 탐방기

1. 학내-정정현 · 종여학생회 · 인문대여학생회

2. 학외-들꽃모임

V. 「석순」과의 작업회

VI. 3월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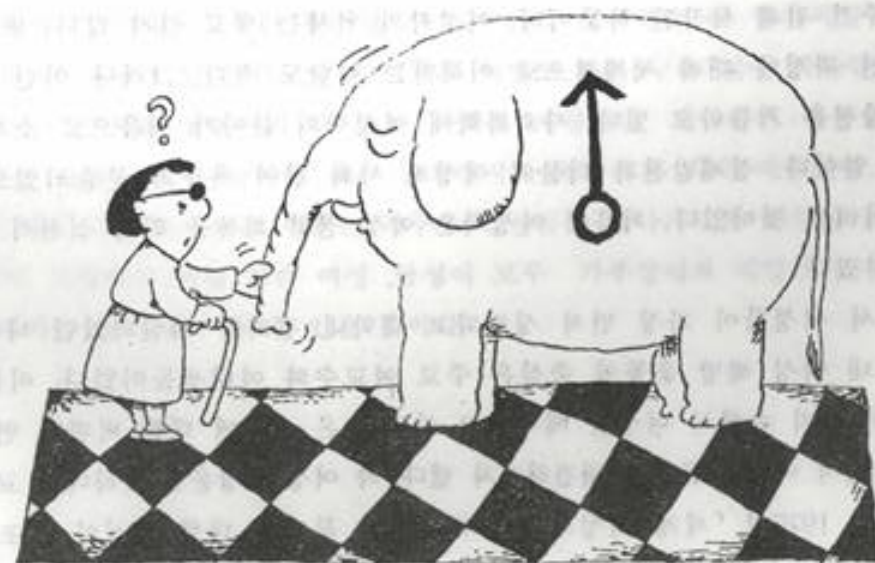
VII. 뒷짜투리

I. 앞짜투리

우리가 하나의 성으로서 세상에 고개를 내민 순간부터 우리 각자에게는 특정한 성역할이 부여됩니다. 지금 이 '읽을거리'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역할과 기대치에 부담을 안고 있진 않은지요?

얼마전 '아버지'라는 소설과 한 TV에서 방송된 한 여인의 눈물나는 모성애와 희생을 그린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준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죽어 가면서도 남은 가족을 위해 가게 자리를 구하려 다닌 '아버지', 희생적인 여인상을 그리워하는 듯한 드라마... 우리 사회에서 이 모습들은 남성에게 여성에게 전형화되어온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눈물을 자아내긴 했지만, 각자에게 지워진 책임이 극대화되어 표현된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여성학이 다루는 문제의식과 그 해결점은 전복된 현사회가 아닙니다. 각 성의 역할이 전형화 되어있는 사회의 인식의 틀을 깨고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두 성이 각자의 부담을 안고 있긴 하지만, 남성 권력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이 사회에서 여성이 같은 눈 높이에서 남성을 바라보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지고 나의 일은 아닌 것 같은 여성 문제에 대해, 여성학에 대해, 여성 운동 단체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뛰어난 능력으로 또는 사회의 요구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여성으로서 겪는 무게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저 지나쳐가는 일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II.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1. 여성학의 정의

여성학이란 여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학은 여성 문제의 현상, 원인과 구조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2. 여성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여성학은 과연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라는 질문은 존재론, 규범론, 인식론적 시각에서 사람들의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기존 사회의 철학적 언명들은 남성 위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여성학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은 여성의 덕목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학은 성별 변수를 사회과학의 중요한 설명 변수로 인정하고, 성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제도 및 인식을 개선해 나가려는 연구 및 교육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여성학은 성적 불평등의 제도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제적 성격을 띤다. 여성학과 관련된 기존의 학문으로는 우선 철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등이 있다. 여기서 보여지듯 여성학은 여성 성의 고유한 특성을 연구하기도 하고, 기존 학문체계 자체가 남성 주도의 편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독립된 학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3. 여성학의 시작과 발전

여성학은 사회 내 여성 문제들의 근원을 해명함으로써 여성 문제의 해결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 시작된 학문이다. 여성학의 역사는 별로 길지 않다. 또한 여성학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적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학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과학에 여성학의 분야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70년 초반의 일이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가 분출되었으나 이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처음에 여성학은 여성 권위 회복을 위한 실천적 학문의 성격을 띠고 출발하였다.

학문으로서 여성학이 가장 먼저 성립되고 대학내 강좌를 개설되었던 나라는 미국이다. 초기 대학 내 여성 해방 운동의 중심은 주로 여교수와 여대생들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 속에서 여성을 배척하고 차별해 온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즉 여성 해방운동은 하나의 교육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이래 여성 문제를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이화 여자 대학교 교수들이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학 과정 설치의 제안」

이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여성학 강좌가 대학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함으로써 여성학 강좌 개설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화 여자 대학교 한국 문화 연구원도 1976년 여성학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여성학 연구에 착수하였다. 1977년 이화 여자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여성학 강좌는 여성학 연구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후 관심이 더욱 증폭되어 전국 20여곳 이상이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여 점차적 증가 추세다.

4. 여성학은 왜 학문으로서 존재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남성'의 역사이었으며, 모든 학문은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유사 이래 모든 지식의 주체는 남성 이었으며 여성은 언제나 객체로서만 존재해 왔다. 따라서 말로는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학문이 실제로는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어 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했던 학문들은 실은 편파적인 남성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성학이 학문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회의 편파성을 비판하고 수정해 나가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여성학의 지향점

여성학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 학문과는 달리 뚜렷한 가치 지향 점을 띠고 있다. 여성학은 어떤 학문인가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여성에 관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성을 위한'이란 말로서 그것은 '여성의 인간화'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학은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혀 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성별에 따른 구속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여성을 인간적으로 억압하는 사회는 필경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남자까지도 억압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못나기를 요구하는 사회는 거꾸로 남성들이 잘나가도록 억압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학의 지향 점은 여성, 남성이 모두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성별에 구속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산적해 있는 여성 문제!

그 본질은 무엇이며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학에서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성 문제의 본질을 하나하나 따져 나가기 전에 '남녀'의 성차에 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아이가 아들이나 딸이냐에 따라 각기 성별에 따른 일련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아이의 성별에 알맞게 키우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별에 알맞은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키고 격려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일까. 만약에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 것일까. 그리고 만약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성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또한 이러한 성차이가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성기의 모양이나 체격 등 생리적인 차이는 차치하고 심리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남녀의 성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남녀의 성차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반박해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전문직, 관리직에 진출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그 곳에서의 진출이 부진하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전반적인 남녀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남녀 차이가 없고 지적 능력 중의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남녀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정도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 개념이 궁극적이라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는 발견될 수 없다고 한다.

셋째, 성취 동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일을 할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내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공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현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육아 책임 등의 외부적 요인이 여성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넷째,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쓰며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여성 모두 대인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반해 여자아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신경을 쓰며 남을 세심하게 보살피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남과 여에 관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 실제로 남자와 여자간에 성차이가 나타나는 분야가 의외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남녀라는 두 집단간의 차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차이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차이를 보인다면 그것은 같은 인격체로 태어난 남녀가 사회가

부여하는 남녀간의 다른 사회화에 의해 다르게 성장해서 결국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자답게, 남자답게 라는 사회의 질서에 따라 현재의 성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 여자라는 두 집단이 형성되는데 '여자'라고 명명된 집단은 나머지 한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모든 부분에서 가치 저하된 역할을 맡고 있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과 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돌보아 줄 수 있는 남성, 나약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여성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항상 접하게 되는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역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의 고유의 성역할 유지가 아닌 양성성이 조화된 인간이 되기 위해 남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여성과 성, 사랑

성과 사랑은 흔히 사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 관계와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적, 공적인 것의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성과 사랑은 성 불평등한 역사의 배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불평등한 남녀 관계, 사회 관계와 문화적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우선 성불평등을 정착시켜 온 가부장제하에서 성과 사랑은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1)성의 이중 구조

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여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나 생리적인 충동에서 성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본질주의적 접근이다. 이 관점에서는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러한 본능을 통제하기 위한 금기와 규제체계를 발달시켰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성을 인간의 심리와 사회 문화적 구조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인간이 자연적인 단일체가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 역시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구성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적 행동 양식은, 다른 인간 행위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규범과 역할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욕이나 성심리는 성문화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면서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성은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요소와 사회 제도 및 문화 구조가 복합적으로 함축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결혼 제도는 성규제의 방식을 결정하고 성규범과 성윤리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이다. 가부장적 일부 일치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종속과 성적 종속을 제도화한 것이다. 남성의 재산권을 토대로 하는 부계 중심의 혈연 제도와 부권을 절대시하는 가족 제도 속

에서 형성된 성문화는 다음 몇 가지의 보편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가부장제 결혼은 이중적 성윤리의 전통을 가진다. 여성의 성은 남자의 상속권과 가문 계승의 목적을 위한 생식의 기능에서 최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결과 정절이 여성에게 절대적인 의무로 강요된다. 따라서 순결은 여성에게 재산가치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남성에게는 혼외의 성의 자유와 함께 매춘이나 축첩을 통한 이중적인 성생활이 허용된다.

둘째, 남녀간의 지위를 불평등하게 규정하는 가부장제에서 결혼을 통한 성적 결합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부계와 부권은 남성에게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은 성적 자율권과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여성이 정절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그 가장인 남성의 성적 소유권을 지키는 것과 같으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성적 복종은 결혼의 의무로 규정된다.

셋째, 남성은 본래 성적 본능이 강한 반면, 여성은 비성적인 존재라는 신화가 존재한다. 이 신화는 여성이 정절의 의무와 남성의 성 통제권에 예속된 채 성의 억압을 감수하게 하고, 모성의 역할에 필수적인 생식 기능 이외의 성생활을 터부시하여 불감증을 미덕으로 여기게 만든다. 반대로, 남성의 매춘 행위는 '필요악'으로 묵인할 만큼 강한 성욕의 표현을 남성성의 상징으로 미화한다. 이처럼 가부장제는 성욕과 성본능에서 남녀간에 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조성해 온 것이다.

넷째, 가부장적 사회에서 규정된 성역할과 성적 정체성은 성별에 따라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성규범을 배태하였다. 곧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은 적극적, 능동적, 명령적, 공격적인 반면에, 여성의 역할과 여성성은 소극적, 수동적, 순종적, 방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속성이 남성과 여성을 각기 주체가 객체로 대칭 되는 성관계로 유도하고 여성을 흔히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남성의 성적 주도권과 적극성은 남성 중심의 일방적인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가부장제의 성문화는 성기 중심적이고 남근 숭배적인 속성을 내포한다.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 원리는 남성의 성적 우월성과 남성 본위의 성관계에 근거하는 성관습을 정착시킨 것이다. 남성의 성욕 충족을 위한 성교 행위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교류보다는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성관계의 패턴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남성 중심의 성패턴에 수동적으로 적응하여 왔을 뿐, 그들 자신의 주체적인 성문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차별적인 성규제와 성규범, 그리고 성의 신화를 토대로 하는 가부장적 성문화의 이중 구조는 남녀간의 성관계의 부조화와 불화의 요인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성을 매개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 통제, 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 문제의 근원이 된다.

(2) 사랑의 성차

가부장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존재하듯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서도 남녀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선천적인 속성에서 비롯하기보다는 사랑의 성차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남녀의 현실 문제, 즉 성불평등한 사회 문화 구조의 모순을 불가피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한 남성과의 사랑을 매개로 가부장적 사회의 지배와 통제를 암암리에 수용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사랑의 개념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성역할의 이분법과 상통한다. 성역할은 여성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존재, 즉 남자에 의해 선택되는 상대로 만든다. 여성이 사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남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자발적인 순응을 자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성의 간섭과 통제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예속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게 만든다. 반면 남자는 성역할의 모델에 따라 사랑에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다. 흔히 남성에게 사랑은 정복하고 쟁취하는 것, 또는 소유와 지배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부장 문화에 길들여진 남성은 인격적인 자질보다는 주로 성적 매력과 순종성을 지닌 여성을 사랑의 상대로 선호한다. 또한 여성의 사랑을 모성적인 사랑으로 정형화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여성적 사랑으로 예찬된다. 이러한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여성은 흔히 사랑을 일방적인 자기 희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남성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여성성의 표본으로 기대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은 역사의 뒷전에서 사랑을 통해 삶의 영역을 확보하고, 또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정당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성에게는 사랑하는 남성을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역으로 이상적인 조건의 남성이어야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잠재한다. 여성에게 사랑하는 것은 마치 남성에게 평생 직업과 같은 의미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여성을 열등하고 기생적인 계급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 특히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주어지는 열등한 지위에 대해 도전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남성의 인정과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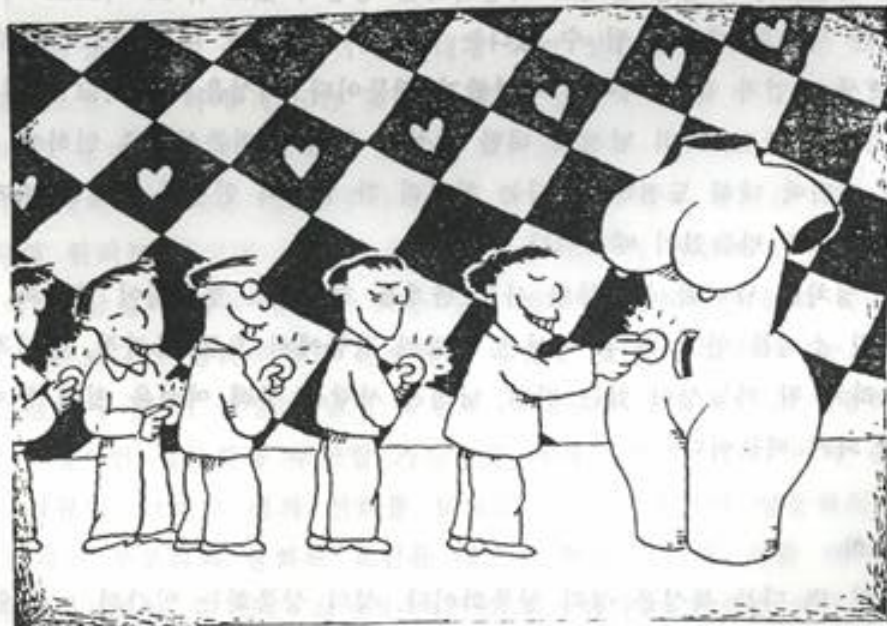
결국 사랑의 성차는 남녀의 불평등한 사회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남녀의 불화와 여성 문제를 파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여성은 사랑의 갈등에서 오는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남성은 사랑을 통해 여성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3) 성의 상품화

현대 성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성의 상품화이다. 성의 상품화는 인간의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 가치로 전환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 현상이다. 이윤 증대의 목적에 따라 에로티시즘이 소비와 여가의 산업 경제와 상업 문화에 적극 이용되면

서 인간의 성은 한낱 상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기능적 소모품이 되어 간다. 게다가 각종 성산업은 성의 기교에만 광적으로 몰입하는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성상품을 양산하여 가학적이고 자학적인 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이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전시되는 현실에서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가 늘어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성의 상품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성분화를 심화시키고 여성의 인격을 성적 상품 가치로 비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각종 소비 상품과 광고는 여성의 성적 매력과 에로티시즘을 부각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사물이나 이미지로 전락시킨다. 여성의 성과 육체의 물상화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더욱 비하시키는 것이며, 성의 매매와 대중 소비의 증대는 여성의 성적 노예화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성산업 외에도 여성의 성적 매력을 노동력의 일부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에컨대 비서, 안내원, 호스티스, 판매원 등의 여성 직업에서 성의 상품 가치를 최대한 개발, 이용하는 경향이 증대한다. 각종 미인 대회가 늘어나는 것 역시 여성의 상품화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오염되어 노동보다 오히려 육체와 성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미래의 성과 사랑

성과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본능, 감정, 심리를 성차별적 사회 원리와 문화에 깊숙이 동화시켜 이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가부장 사회에서 개인의 성과 사랑의 실천은 남성 우원주의에 입각한 사회 관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특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회적 통제와 지배를 재생산하는 기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현대의 성과 사랑은 상업주의와 물신주의에 의해 인간적인 본질을 파괴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성은 범죄와 폭력의 무기로 전락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협적인 요소로 변질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과 사랑의 미래는 남녀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는가, 즉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남녀가 성과 사랑의 대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과 사랑의 인격적 교류는 상호적이고 민주적인 남녀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남성의 이기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고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이성 관계는 인격의 교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함께, 상호 능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 사랑에 의해서만 여성, 남성이 함께 해방될 수 있다.

둘째, 성과 사랑이 결합되고, 육체와 정신,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성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성적 매력이나 성적 결합에만 의존하는 사랑, 사랑이 매제된 성의 유희는 인간적 정서를 훼손시키는 동물 수준의 일시적 도취에 불과하다.

셋째, 시장의 원리가 매제된 성과 사랑의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시장 지향적'인 인간이 되어 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 사랑은 물질적 이익이나 실리적 목적을 위한 일종의 교환 가치로 변질되고 매매준이 정당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인간성 자체를 타락시키고 인간으로부터 성과 사랑을 소외시킨다.

우리는 기존의 성과 사랑의 모순되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개혁과 문화 운동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행동에 직접 옮기는 것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무적이고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2)여성과 가족

(1)현대판 가부장제 가족-핵가족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정은 부계 부권 가족임은 말할 것도 없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대의권을 가졌으며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권한, 그리고 가족에 속한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하며 상속시킬 권리를 갖는다. 아버지와 기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핵가족은 애정적 개인주의에 중점을 둔 결혼 관계로서 대부분 수평적 평등 관계에 기반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그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 핵가족은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핵가족은 부양자 남성과 살림꾼 여성, 이렇게 이분화된 역할 분리에 그 기반을 둔다. 전통 가족의 가부장제는 부자 관계가 강하고 수직적 상하 질서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데 반하여, 현대의 핵가족은 외면적으로는 양성 평등의 이념과 공존하면서 심리적으로 성별 불평등을 정당화시킨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여성을 억압한다. 당사자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 전통적인 결혼 제도와 달리, 개인간의 약속에 기반한 일부일처제의 결혼 관계 안에서, 그들은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평등주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의 역할은 성별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될 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남성은 가정 바깥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여성은 집안에서 가족을 보살피며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분리는 핵가족의 이상으로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소외된 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갇힌 상태에서, 남편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의 삶, 화폐로 교환되지 못하는 정서적 역할과 가사 노동을 수행하면서, 남편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와 동일시하는 여성의 삶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 사회에서 소외된 자의 삶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예측은 동시에 정서적 예측을 낳아,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주체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남성에게 종속된 지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핵가족 안에서 여성은 이러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여성의 일이 대개 사랑의 이름으로 미화되기 때문이다.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 양육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남녀 관계가 독립, 의존적인 지배 관계인한, 남성 역시 진정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해방되지 못한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남성은 여성 대신 사회에서 성공함으로써 여성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것이다. 남편에 의해 사랑받는 아내와 성공하는 남편이 각자 서로를 대상화시키며 동거하는 가정은 더이상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평화로운 생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2)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화

현대 가정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성별 역할 분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불평등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답게' 길러진다기보다 '여자답게' 또는 '남자답게' 길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무시당한 채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특성에 맞추어져야 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역할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온 부모의 고정 관념에 입각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말이다. 예를 들어 한 아기는 여자 아기인가, 남자 아기인가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지고, 데리고 노는 양상과 이야기를 걸 때의 내용이 달라지며, 시키는 일과 무엇을 잘해야 한다는 기대가 달라지고,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고 커서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달라지게 된다.

여성은 따로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기대되는 역할에 맞는 성격과 태도를 갖추도록 요구되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결국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 가정의 안정 여부가 여성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결론으로 통하게 된다. 이른바 가

정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여성 개인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는 식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외도를 했을 때 아내가 얼마나 역할 수행을 잘못했으면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라고 그 여성을 비난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매 맞는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구타당하는 원인이 바로 여성 자신에게 있다고, 남성의 권위를 세워 주어야 할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잘못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성은 가정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며, 남성의 보조자로서 남성을 위안해야 한다는'식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나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의존성을 내면화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나'가 부정된 결혼 관계는 필경 여성으로 하여금 어느 시기가 되면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몰고 와, 여성을 일종의 신경증적 현상에 빠지게 한다.

(3) 양성 평등의 가정을 향하여

기존의 가정 윤리는 성별 불평등에 기반 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켜 왔다. 가정 안에서 인간은 개인 특성이 무시된 채 정직된 성별 분업을 담당하도록 강요되어 왔으며, 그러한 성역할에 적응할 수 있게끔 사회화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사회의 가족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가족일 때만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평등주의적인 민주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에 있어 남녀가 자의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며, 결혼은 사랑과 우정에 기반한 도덕적 관계이어야 한다. 결혼은 진정으로 상호간의 인격적 성장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위해 서로 협동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둘째, 자녀 양육의 방향에 있어서 자녀를 자녀 개개인의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가족의 인간화는 가족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 여성의 예측과 소외를 강요하는 여성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가족이 여성을 공적 역할이나 사회 생활에서 소외시켜 일생을 한 남성에게 예측되어 살게 하는 속박의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족은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사회와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화 노동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지난 20, 30여 년간 여성 노동자의 참여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취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나라 전체 여성 인구의 절반 가량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집에서 일하는 가정 주부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많은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로서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 취업의 양적인 증대가 곧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업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겪는 일반적 착취뿐만 아니라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 불리한 고용 조건,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 등의 차별을 경험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차별과 가사 노동과 사회 노동의 병행이라는 이중 부담의 고통이 따르고 있다.

(1) 저임금과 차별 임금

여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차별은 저임금과 차별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여성들은 남성 평균 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다. 한편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남성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남녀 임금 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녀 임금 격차가 있는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여성 노동자들 자신도 차별 임금을 받는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차별 임금을 주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여 남녀가 동일하게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승진에 차별을 둔다거나 작업 배치를 다르게 하거나 호봉을 달리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종종 사용한다.

(2) 성별 직종 분리

취업 여성에 대한 차별의 두 번째 형태는 보수가 높은 전문 직업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보수와 위세가 낮은 부문에서 고용하는 직종 분리에 따른 차별 문제이다. 여성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보수가 높고 명망 있는 전문직이나 행정직에 취업한 여성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 저임금의 판매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제조업 내의 업종별 분포에서도 여성들은 섬유, 전자, 봉제 등 저임금 업종에, 남성들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고임금 업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분리는 남녀의

능력에 따른 차이보다 고용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여성에게 저임금 미숙련 일을 담당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3) 고용의 불안정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차별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노동력이 부족한 전쟁이나 호황기에는 여성 고용도 증가하지만 공황이나 불황기에는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은 가정에서 육아나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라든가 '여성은 가계 보조적인 노동'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일차적으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들은 고용 형태에서도 안정적인 상용고 비율은 낮고 불안정한 일용고 혹은 임시고 형태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으며 최근에는 파트 타임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 차별적인 고용 관행

취업중인 여성들은 다양한 고용 차별 관행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다. 여성들에게는 거의 승진과 승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고졸 또는 대졸 남녀가 함께 취업한 경우 4,5년 정도 있으면 남성은 승진하여 직위나 보수, 기타 대우 조건이 나아지는 반면 여성은 사무직의 경우 서류 작성, 보관 관리 업무 등 단순 노동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진과 배치 등에서 여성들의 차별 대우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혼이나 임신 이유를 여성을 퇴직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가 길어져 그에 따른 호봉의 승급 등으로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를 쫓아낼 수 있으면 빨리 퇴직 또는 해고시키는 것이다.

(5) 여성의 이중 노동

여성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에 참여할 때도 당연하게 가사 노동 역할을 요구받으며, 때로는 취업 여성이 가사 노동을 조금만 등한시해도 여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는 가사 노동이 일차적인 역할이고 생산 노동은 부수적인 노동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양한 차별을 받기도 한다. 즉, 인간의 기본 권리 가운데 하나인 노동을 선택한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 진정한 독립적 권리를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중의 질곡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하게 성이라는 자연적 속성을 차별 수단으로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는 우리 사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 차별의 정도는 선진국 여성들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6) 여성 노동자의 평등을 위하여

현재 여성 노동자 운동이 다양한 직종과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도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임금, 노동 조건 개선 문제 외에도 고용 문제, 모성

보호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은 여성들의 인간적인 삶과 전체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해 내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현저하게 여성에게 불리한 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 남녀 고용 평등법의 실질적인 쟁취, 올바른 모자 복지법, 탁아 입법의 쟁취로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과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 차별 임금,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폭행 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제반 편견과 완고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 노동과 사적인 가사 노동을 통해 이들을 보는 자본주의의 작용 방식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 문제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크게 성과 사랑, 가족, 노동 파트별로 살펴보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여성 억압은 계급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사회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 억압은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방식과 형태로 표출되고 여성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여성 문제는 계급 모순이 철폐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 문제는 계급 모순만 철폐된다 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 문제가 계급 사회가 형성된 이후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와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체제와 가족 제도 등과 결합하여 강고하게 지속되었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 억압하는 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운동은 여성 문제의 특수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되지만 계급 모순만 해결되면 여성 억압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단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운동은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인 계급 모순뿐 아니라, 지배 종속적인 남녀 관계를 유지시키는 성별 분업, 가부장제 가족 제도, 성차별 문화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등을 철폐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해방을 위한 여성 운동은 여성 문제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바탕으로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여성 모순 구조를 드러내어 타파할 수 있는 실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성 문제의 본질상 여성 해방은 여성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남성들과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해방 운동은 곧바로 인간 해방 운동이 되어야 한다.

III. 여성학에 대한 편견 깨기

1. 여성학은 여성들만을 위한 학문이다?

흔히들 '여성학'이라는 이름에 붙은 '여성'이란 말 때문에 여성학은 여성들만을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여성학'이 추구하는 바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금방 풀릴 수 있다. 여성학이란 단적으로 말해 여성을 위한 학문이다. 이 '여성을 위한다'는 말은 바로 '여성의 인간화를 꾀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여성학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까지 여성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무시당하고 천대받아 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 것이다.



여성학의 모태가 여성 해방운동이고, 그 이론적 토대가 여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학은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 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성별에 따른 구속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여성을 인간적으로 억압하는 사회는 필경 여성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남성까지 억압하고 말기 때문이다. 여성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못나기를 요구하는 사회는 거꾸로 남성에게는 늘 잘나기만 요구하면서 남성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려 든다. 우리 사회에서처럼 남녀 관계가 독립·의존적인 지배 관계인 사회에서는 남성 역시 진정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해방되지 못한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남성은 여성 대신 사회에서 성공함으로써 여성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생산성, 효율성과 경쟁성, 즉 기능적 합리주의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성공이 좌우된다. 말하자면 여성이 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반면, 남성은 성공의 대상물, 정체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비인간화된 산업 사회에서 남을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선 남성은 스스로 자신의 비인간성으로 단련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해방이 곧 남성의 해방으로 통하게 된다. 여성학이 곧 여성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페미니스트는 휴머니스트이다라는 말이 가능하다. 역으로 휴머니스트는 페미니스트라는 말 역시 가능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 신드롬'이 일고 있다. 명예퇴직이다, 조기 퇴직이다하는 바람에 청춘과 인생을 바쳐 회사를 위해 일해온 아버지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노동계는 물론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웠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함께 쏟아져 나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직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파들림받으며 쓸쓸하게 살아가다 어느날 불치병에 걸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외도를 한번하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그린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듯 팔려나갔다. 이 소설 속의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때 자신이 죽었을때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몹시 염려한다. 즉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 자신이 죽게 될 순간까지 가족들을 염려하는 이 '눈물겨운' 아버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으리라. 명퇴, 조퇴의 바람으로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버지, 돈을 버느라고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적 여유를 즐기지 못했던 아버지는 집에서 소외되고 요즘 한창 인기인 여권 상위 시대, 페미니즘의 열풍에 따라 점차 그 지원이 실추되어간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기를 살려줍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자. 아버지로 하여금 죽는 순간까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게끔 만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 생계의 책임자로 전담시킨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집안의 일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부터 소외시킨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은 남성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여자는 가정에서 집안살림을 하는 사람으로 이분화시켜놓은 구조 때문이다. 남성은 한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생활한다. 밖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정다운 말 한 마디 건넬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왜 남자 즉 아버지만이 한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성들을 가정내에만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여성들로 하여금 밖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라. 세상의 짐을 남자들이 혼자서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성들과 함께 나눠 지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과 세상을 함께 고민하고 세상의 짐을 분담하려고 생각할때 더이상 '아버지의 기를 살려줍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여성 운동이 비록 여성끼리의 연대를 강조하긴 하나 그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화스럽게 공존해 나가는 인간해방 사회이듯이, 여성학 역시 여성들만의 배타적 학문이기를 고집하지 않는, 남녀가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학문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 페미니스트는 동성연애자다?

일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을 '여성성의 새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최소화시킨 '양성 문화'의 지향으로부터 남성 문화를 여성 문화로 대체시킨 것까지 아주 다양하다. 그 예로 남성도 여성도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이성애 제도를 변형시키는 것으로부터 이성애를 거부하고 독신, 자기 발정, 또는 레지비아니즘을 선호하는 것 등 아주 다양하다. 이런 제안들은 같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부분 비판받고 있다.

3. 페미니스트들은 프리섹스 주의자다?

'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섹스, 성관계, 포르노, 야한 것, 죄스러움, 더러움, 창피함... 이처럼 우리들은 대부분 특정한 의미로의 성행위, 성관계로 성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성은 섹스를, 섹스는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

렇게 성행위 중심으로 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지금껏 성은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하여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몰래 은밀하게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 따른 사회 변동과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성생활과 성관념이 점차 자유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면서 각 개인의 자유의사, 자율결정권 등 자유에 관해 많이 언급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성도덕주의 대신 개인주의의 발달과 함께 성의 자유와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음란 서적, 음란 비디오물, 게다가 인터넷 사용을 통한 음란 통신물을 맘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었다. 대중 매체 중 가장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TV에서도 우리는 예전에는 감히 생각조차하지 못했던 남녀간의 키스, 섹스 행위(물론 암시의 기법을 쓰기는 하지만)를 자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페미니즘에서는 '성해방'을 주장한다.

성기 중심으로 성을 이해해 왔던 우리로서는 이러한 성해방이라는 것이 곧 아무하고나 아무 구애 없이 성관계를 맺어도 좋다는 프리섹스 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다. 또한 여성학에서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순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육체적 순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을 비판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을 듣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은 프리섹스 주의자들이 아니냐고 진지하게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성해방은 프리섹스 주의와 다르다. 여기서 잠깐 '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말의 '성'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에는 sex, gender, sexuality가 있으며, 여성학에서 주로 말해지는 '여성'과 '성'에서의 '성'은 sexuality이다. sex는 신체 구조에 입각한 생물학적인 성이며 성기의 생김새에 따라 남녀의 성정체감이 결정된다. 그러나 sex는 앞의 의미보다는 대화나 글에서 성관계를 의미하는 일이 잦다. gender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성이며 여성다움(여성적이다), 남성다움(남성적이다)을 통칭한다. "저 여자 애는 남자 같애"에서 '여자'는 sex이며 '남자 같애'의 남자는 gender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sex와 gender는 일치하며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화를 시킨다. '성성'이라 번역되는 sexuality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넓은 의미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성관계'는 인간관계의 하나로서의 성관계를 뜻하며 우리 사회의 성기 중심적인 섹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성(sexuality)은 신체 구조와 심리 구조, 사회적 규범과 특정 사회구조들에 의해 지지되는 복합적 스펙트럼으로 남녀간의 때로는 동성간의 육체적 사랑, 육체적 접촉 욕구, 판능적 쾌락, 욕망, 감각적, 감성적인 친밀성 등 인간사이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용어들을 포괄하는 총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분리될 수 없는 가장 복합적이며 밀도 짙은 사회적 의미를 띠는 것이다.

페미니즘에서 '성해방'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성'의 개념은 sexuality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억압과 불평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해방'을 부르짖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다른 성규범이 존재한다. 단적인 예로 순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남자의 순결은 별반 중요시되지 않는 한편 여자의 순결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남자가 순결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하는 한편 여자가 순결을 잃었을 때는 '몸을 망쳤다'라든가 '몸이 더럽혀졌다', '더러운 여자', '인생을 망친 여자'로까지 생각하기 일쑤다.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다른 성규범이 적용되는 것인가.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었던 원시사회에서는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는 확실하나 아버지는 몰랐다. 세월이 흘러 일부일처제의 가족이 성립되고 땅, 씨앗, 동물 생산물, 경작한 만큼 수확물이 생기면서 재산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여자는 인간을 만들어 내고 남자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남자는 재산이 축적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의 '성'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자신의 아이만 출산해야 하므로 오직 여자는 그 남자와만 성관계를 해야 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이가 생기면 재산을 물려주고 또한 그 남자 아이(아들)는 노동력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남자(아버지)에게 재산을 더욱 늘려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성의 입장에서 자기 여자의 성은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모든 남자들의 암묵된 약속이었다. 특정한 아이에 대한 남성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다른 관계들의 배제가 필요한 것이다. 남성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자신의 여자 이외에는 타인의 여자를 건드리는 신체적 접촉의 기회를 서로서로 제한했으며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부권을 사회적으로 정의하며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창설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남근 중심의 법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절과 남성들간의 협력에 의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권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렇게 원시시대부터 통제된 여성의 성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결혼과 가족 제도에서 더욱 억압되었다.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의 성이 강조되며 혈통의 순수성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순결 이데올로기는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결국 여성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남성의 성적 소유권을 지켜 준다는 것인데 여성은 왜 자신을 억압하는 순결관을 깨지 못하고 남성에게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순결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남성이 주체고 자신은 객체'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순결 이데올로기를 비난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의사를 소통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성은 사랑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라는 생각을 지니고서 성에 대한 통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느낌대로 성관계 여부를 결정지을 것을 주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기존에 여성들로 하여금 무조건 육체적 순결을 강요했던 사회의 통념과 많이 다르

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을 프리섹스 주의자가 아닌가'하는 오해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학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성, 나의 몸의 진짜 주인되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이 우선적으로 같은 성규범의 기준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성관계를 갖다 주는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페미니스트는 여성 상위를 주장한다?

남성중심체제에 대한 전복을 꿈꾼다?

페미니스트들은 결코 여성 상위 시대를 외치지 않는다. 여성 운동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남성과 동등한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한 인간화 운동이며 남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현 사회의 억압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화 운동인 것이다. 또한 여성 운동은 남성 지배 문화가 초래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적 삶의 원리 속에서 그 가능성을 찾는 대안 문화 운동이다. 되풀이 말하자면 여성 운동은 단지 이제까지 차별 받아 왔던 여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인류의 평화 공존이라는 위대한 목표와 이념을 갖춘 사회 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바로 이러한 여성 운동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념이다. 페미니스트는 전복 자가 아니라 휴머니스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변혜정, 이영애, 장공자, 장정순, 정현숙 공저. 1996년. 여성 여성학. 단국대학교 출판부.
- *심영희 저. 1992년.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출판사.
- *로즈마리 톰 지음. 이소영 옮김. 1995년.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 *이영자, 김혜순, 민정자, 이정옥 지음. 1993년.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 *정정현 편집위원회. 1996년. 정정현 읽을거리 21호.
- *한국여성연구회. 1992년. 여성학 강의. 동녘.
- *박해란 지음. 1994년. 삶의 여성학. 또하나의 문화.

IV. 학내외 여성운동단체 탐방기

1. 학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여성운동단체들입니다.

정정현 편집위원회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과 성대를 다니면서 아직도 정정현 편집위원회를 모르는 분들께 정정현이 인사드립니다. 명륜동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는 '정정현'이라는 이름의 두 장소가 있죠. 한 곳은 여학생 휴게실인 정정현 휴게실, 또 한 곳은 여성문제 전문교지를 펴내는 정정현편집실입니다. 가끔씩 아니 종종 사람들은 정정현 휴게실과 정정현 편집실을 혼돈하곤 합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조교가 지키고 있는 정정현 휴게실이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안고 모인 학우들이 매체활동을 하는 정정현 편집실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정정현 편집실!!!

정정현편집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사업은 1년에 한번 그간의 고민과 연구와 세미나를 바탕으로 펴내는 '정정현'이라는 이름의 여성문제 전문교지입니다. '정정현'은 1972년 여학생들의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 매체활동을 시작해서 여성의 차별과 억압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여성문제 전문교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올해 97년에는 26호 발간을 준비하고 있구요... 91년부터는 성대내의 여성문제 인식 확산을 위해 '읽을거리'를 1년에 4번씩 시기의 여성문제를 짚어내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 세미나를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고 선배님들이 계신 여성단체나 그외의 단체들의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란 말의 의미에서부터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모성보호, 여성에 대한 매체연구 등 성대내 여성문제의 인식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현재에 이르러는 여성에 대한 억압만큼 남성들이 짚어지고 있는 나름의 부담이 있음을 인식하고 여성문제의 고민과 아울러 남성문제에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현'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 옛날 여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옛날 남자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 정정현 수습 편집위원을 모집하는 일...

정정현의 1년 계획 중 없어서는 안될 일이겠죠▷

▶ 기대가 큰 대학생활 이곳저곳 관심이 많겠죠?

▶▶ 정정현 편집실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고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문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정정현에서 얘기해보자구요.

▶▶▶ 정정현은 매년 사시사철 수습편집위원을 모집합니다.

96·97학번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문득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성균관

학우라면 누구라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요.

정정현의 일원이 되지 않더라도 세미나에 참여하고자하는 학우들

역시 환영합니다.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학생회관 3층의

정정현 편집실의 문을 두드릴 것!!!

정정현 편집실은

760-1417입니다◁

여성애방/인간애방

정정현 편집위원회

☞ 그곳에 가고 싶다!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가 뭐예요? 총학생회랑 다른 거예요?

-하하하, 예 물론 다른 곳이지요. 총학생회와는 다르게 총여학생회는 여성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내에 존재하는 산적한 여성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학우들이 활동하는 곳이 바로 '총여학생회'입니다.

◎여성문제라고요? 요즘 한참 얘기되었던 페미니즘같은 말과 관련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문제는 단순히 말하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페미니즘은 그러한 여성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이론적 매개체인 셈이지요. 혹시 새내기 여러분은 여성이 '해방'되어야 할만큼 억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의 여성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동기 남자아이들과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셨지만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추천서나 원서조차도 못받게 되어 버리지요. 세계일류를 달리는 강간범죄와 200만의 매춘여성들, 똑같이 일하고도 남자의 60%-70%정도 밖에 돈을 못받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 다 아는 이야기로 잘난 척 하고 있나구요? 하하 이런 민망할테가...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여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일겠는데, 꼭 여자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요. 하지만 이것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여성문제는 남녀가 분리되어서 생각되어져서는 곤란하지요. 항상 여성문제의 한쪽에 고개숙인 남성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가해자이기도 하지요. 문제에 피해를 보고있는 당사자인 여성들이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인 것은 그 때문이지요. 남성들은 그게 문제긴 문제인데...음 나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단 말이야 하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여성들은 이 문제가 바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주체'는 당연히 여성들이 됩니다. 그 여성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여성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는 남성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안는 것 역시 중요할 테지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대학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데 이 정도 소양을 쌓은 여성이면 당당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두 실력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여성문제를 떠들어대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요. 우리는 선택받은 여성들이지요. 전에 송지나씨도 그러했다. 여성으로서 방송가에서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내가 능력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더라"고.. 송지나씨는 특출난 재능으로 방송가에서 유명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명문여대를 졸업했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책을 인용해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앗, 말이 딸리니까 책까지 동원한다구요? 들켰군요..후후.. '깍뎌기를 벗고서3'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성 모두가 해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여성도 결코 해방될 수 없다. 성차별과 억압은 개인

의 여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 역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식인 여성이 요행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가졌다할지라도 육아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것이고, 남성우월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남편과의 평등한 관계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은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식인 여성이 여성해방에 쏟아야 할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울가미에 서로 움아매져 있다. 지식인 여성의 대열로 들어선 여대생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은 여학생회의 구성원이며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과 실천이 어우러지는 그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충여학생회 1년나기♣

1월

새로운 한 해, 97년 제 13대 충여학생회가 1년을 살아낼 준비를 하는 기간. 물론 정신대 서명운동과 확대간부수련회, 새내기 맞이 준비는 기본이지요.

2월

여학생 새내기 새로 배움터. 전체 오리엔테이션의 여성마당 준비에 여념이 없는 2월, 새나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96학번 선배들은 초긴장상태!

3월

등록금부쟁으로, 노동법 4단계 파업으로 시끄러운 3월. 우리는 여성학강의복원, 기본교양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겠죠. 차근차근 재미있는 세미나도 하고...

4월

국제여성영화제가 4월에 동숭아트센터에서 열리죠. 국제페미니스트들의 연대기가 다시 쓰여지는 달! 호신술강연회와 성정치강좌 등 무학점여성학강좌가 개설됩니다. 또 하나의 대학에 수강신청을 하세요.

5월

총여학생회의 가장 큰 축제! 제 4회 여성현실제가 열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비밀이에요.

6월

기지촌활동과 농촌연대활동 준비! 여성농민신문만드라, 기활추진위원회에 나가라, 정신없는 여름이 되겠죠.

인문대 여학생회.....

인문대 여학생회장 배송이
부학생회장 송난희

항상 인사말의 시작은 식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오는 봄입니다. 하지만 그 식상한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인사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물이 소생하고 천지가 빛나는 계절입니다.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여 새내기 여러분들의 모습도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의 열의로 가득합니다. 그에 발맞추어 인문대 여학생회도 역시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그 시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작지만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회생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여성들의 단합을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의 고민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지말고 함께 풀어 봅시다. 그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당당함을 되찾읍시다. 여성해방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모순들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항상 밝은 웃음과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일상의 공동체를 통한 자/기/찾/기/’

제 12대 인문대 여학생회를 소개합니다.



1. 인문대 여학생회는...

12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문대 내의 여학생 자치기구로서, 500여학우의 여학생으로서의 고민과 생활을 담보하는 공간입니다. 정식으로 규정된 바에 따르면 총여학생회의 기층단위이자 인문대의 특별기구이죠. 특별기구라는 것은 일반 학생회와는 달리 자칫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얻기 쉬운 이들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여, 동아리 연합회, 예비·졸업생 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대 여학생회는 '여성'이라는 이름아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차적인 활동 목표는 여학생 문제인 것입니다.

진보적인 대학생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도 특히 학생운동을 한다고 하는 간부들조차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여성관념에 대해서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대학사회 내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 역시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한 사회에서 여학생들이 겪어야 할 성적 차별과 비하 심지어는 성폭력까지도 책임지고 싸워나가야 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총여학생회라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더 일상적으로 학우들을 만나가고 그들의 고민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과마다, 학부의 반마다라도 여학우들의 자치기구는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시작에 문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여의 활동들이 단지 성차별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듯이 말입니다.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이며 따라서 우리들은 사회정의와 평등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2. 인문대 여학생회는 무엇을 하나요?

일상적이고 끊임없는 모임들 속에서 학우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그리고 함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고 힘의 집합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달거리 모임-

달거리라 함은 월경 혹은 생리의 순우리말입니다.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평등세상을 잉태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의 주제를 가지고 만나가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참여해서 함께 느끼고 행동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의 주제는 [대학 내의 성문화] 입니다. 이러한 주제아래 첫째 주에는 '性 바로 알기'라는 성교육을 엽니다. 이것 역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탁 트인 공간에 나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할 생각입니다. 둘째 주에는 매체 비평을 할 것입니다. 첫째 주에 모인 사람들이 찾아온 매체를 함께 들여보며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그 대응방안까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주를 성 신고 주간으로 정해서 건의함과 알림판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넷째 주에는 금잔디에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대학 내의 술자리 문화와 기타 대학문화에서 발견되는 성적 보수성과 고정관념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 월별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 달거리 모임 교양대회(1기)

4월 : 대학 내 성문화

5월 : 문화의 장을 찾아서

6월 : 여성의 콤플렉스(1학기 공개평가)

7월 : 여농반 교양, 기활학교

8월 : 역사 속의 숨은 여성

9월 : 여성과 스포츠

10월 :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 (선거)

11월 : 달거리 모임 총 결산

- 여성학회 -

여성학에 대한 강의마저 부실한 상태라서 여성학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은 필수적이겠죠.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을 공개모집을 통해 모으고 기초적인 세미나를 시작으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모이기 시작하면 과나 학부마다에도 자치적으

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생기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태동 -

태동은 인문대 여학생회의 전문 기관지이자 소식지입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고는 있지만 과연 전문지의 성격까지 띌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요. 대신 소모임의 결과물들이 주로 태동에 실리게 됩니다. 학내의 성관련 사건들도 실리게 될 거구요. 여학생들을 위한 많은 소식들이 예쁘게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 일상사업 -

티 타임 문여방에서는 매일, 시간에 상관없이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시면서 같은 단대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수도도 떨쭌조. 하지만 가벼운 차 한잔에서 같은 여성으로서의 동질의식을 느낀다면 이미 그것이 하나의 고리가 아닐까 합니다.

도시대중 많지도 않은 여성학 관련서적이 어디에 다 있는지... 문여에서만이라도 최대한 많은 책들을 구비해 놓고 필요한 학우들에게 빌려주려고 합니다. 여성학책 뿐만 아니라 여러 소설, 잡지, 사회과학 서적 등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2. 학외

<들꽃모임과의 인터뷰>

들꽃모임의 예명들--짜투리(짜증나는 세상 투쟁하며 살리!), 별, 억압이, 은초, 누더기, 뿌리, 당근
즐마(즐거운 마녀), 희, 푸하, 개토, 이다, 날충, 다시, 치코(치매 코끼리)
속해있는 학교 단체들-- 이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울여대 소모임,
건대 총여학생회, 고대 여성위원회 등...

들꽃모임의 짜투리(들꽃모임 안에서는 예명을 부름)라는 성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 들꽃모임은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모이게 된 단체입니까?

답: 작년(96년) 5월말 이대 대동제 때 고대생 난동사건으로 이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여러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역시 심각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학내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대측에서 연락을 하게 되었죠.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각자의 공간에서 힘이 부족한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서로의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공간에 뜻을 두고 수도모임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문: 이제까지의 모임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답: 우리 모임의 성격이, 학내의 운동단체들이 모여있으면서도 그 단체안의 개인이 모인다는

점, 그리고 상시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정보 유통이 빠르다는 점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를 펼쳐 내기도 전에 외부단체로부터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반의 활동은 외부 사건에 개입하는 식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민으로 모였다가 점점 여성문화-우리만의 문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문화모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여성과 락'이라는 공간도 가져보고, '여성과 미술'에 대해 얘기도 해보고, 소풍도 가보고 하다가, 너무 산발적이라서 어찌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때에 외부에서 사건제안이 들어와서 결합해서 활동을 했었죠.

문: 모임이 정기적이라고 하셨는데 모이는 곳이 특별하게 있나요?

답: '피어나 들꽃'이라는 카페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고 지금은 항상적이지는 않지만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 그 카페 위에 '자기만의 방'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어나 들꽃'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요. 원래 그곳은 '또하나의 문화'팀이 월레논단이라고 매달 주제를 정해서 각계의 사람들과 토론자리를 갖는 곳인데 마침 작년 7월에는 '이대에서의 고대난동 사건'이 주제였고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발제를 하고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이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본거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도 카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문: 수도모임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의미를 둔다면?

답: 우리 모임의 성원들은 각자 운동공간이 다르고 그 공간에서의 일이 바쁜 만큼 들꽃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죠. 그래서 부담없이 수도모임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여성문제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사적 자리에서 많은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내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만큼 학내 성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되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답: 최근에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S맨 사건'이 있는데요. 모여대생이 제즈바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걸치고 춤도 추면서 놀고 있는데 한 무리의 회사원들이 들어왔대요. 신경안 쓰고 있는데 그 무리 중의 한명이 이 여대생의 엉덩이를 쑥 만지고 지나갔어요. 화가 난 여대생이 가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대요. 여대생은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막았지요. 그러고 있는데 동료들이 와서 술취한 사람이니 이해하라고 했죠. 이 여대생은 그러면 저사람(가해자)이 술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이 타당한지 들어보고 타당하면 동료들한테 사과받는걸로 얘기를 끝내겠다고 했대요. 아무말도 못해서 이 여대생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요구하자 대표정도 되보이는 사람이 명함을 주었어요. 그러다 주변에 탄 동료가 연락처를 적어준 뒤 명함을 찢더라고요. 당연히 믿을 수 없었던 여대생은 찢은 명함까지 받았고 그 다음날 적어준 번호는 결번이었죠. 그래서 명함의 팀장에게 연락을 해서 따지자

짜증을 대면서 탄 번호를 가르쳐주고 자꾸 번호를 돌리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학교의 여성학 강좌 시간에 사례발표를 하고 그뒤 교수님이 권하셔서 그 학교의 여성위원회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 통로를 통해 들꽃모임에 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 여대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례를 얘기해주었고 얘기를 들은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속해있는 각학교와 단체들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성명서, 진술서, 사과문을 전화를 돌린 팀장과 성희롱한 사람에게 등기로 보내고 기한까지 어디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사과문을 받아냈어요. 사과문이 미흡하긴 하지만 우선 당사자가 요구한 사과문은 받아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 두는 의의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에 사과문을 받아냈다는 것, 또 가해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남겨진다는 점등이죠. 각개로 흩어져있을때는 고민으로 끝났던 여러사건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와 힘을 갖게 된거죠.

문: 앞으로의 방향!

답: 여성에 관한 폭력들을 다른 문제들에 덧붙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여성문제를 직시하고자 하죠. 근본적으로는 여성주의 문화운동이죠. 이슈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운동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새로운 움직임보다는 남성들이 갖고 있던 체제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성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형식들을 고민해요. 나이주의를 깨고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거나 예명을 붙여 부른다거나 또 공식적인 회의를 갖지 않고 수다모임을 기초로 모임을 꾸려나가는 것. 앞으로도 기본틀은 변화가 없겠지만 지금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운동이 학내외 성폭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중심이 되어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것!

여성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여성학을 공부하고 여성운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 항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다가오는 문제일 것이다. 들꽃모임이 고민하고 추진해나가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현실의 문제들에 즉각적으로 대처한 방안을 모색하고 남녀가 이분화된 지금의 사회에서 여성문화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기 보다 차별의 타파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들꽃모임은 효율적인 목표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V. 「석순」과의 좌담회

■석순이랑!

석순은 고대 학생자치기구로서 여성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석순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고대 여학생위원회가 대외활동을 맡고 있다면 석순은 학술분야와 학내문제를 맡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위원 4명, 수습위원 4명의 총인원 8명으로 구성된 석순은 각 부를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고대의 석순은 막시즘적인 페미니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전제로 하여 여성노동자가 여성운동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96년도에 석순 제13집을 발간하였다.

=석순과 정정현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테마로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다

-여성문제 전반에 대해

석순 :여성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석순이 보는 여성의 문제의식의 초점은 여성해방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고리는 경제력이고, 곧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여성문제 또한 풀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이라고 말할때 노동은 생산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라 나아가서는 곧 우리의 문제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막시즘에서 가부장제를 직시하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지요. 석순은 석순지라는 책을 통한 매체라는 것과 여성문제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담고 있는 석순지의 내용이 그리 쉽게 여겨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정현 :여성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페미니즘 경향으로 갈려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에서 어디까지를 같게 어디까지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도 각 분야마다 설명이 다르게 될 수 있고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기준점이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테마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성문제에서 살펴 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식견을 넓히고 싶습니다. 서로 서로의 생각을 말하면서 우리안의 여성문제에 대한 고찰을 다시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고나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다른 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하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논의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군대, 쿼터제, 여성복지문제등등

석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에서 남성과 여성은 지금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남성은 우위에서 여성은 하위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같다는 평등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은 것은 같게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쿼터제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하위에서 출발하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한 부산물이라

고 봅니다.

석순 :퀴터제는 시작하는 기본전제가 다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퀴터제라는 제도만으로 안주하지 말고 여성문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석순 :군대문제를 본다면 남성은 3년동안의 군생활동안 불평등이라고 느끼며 살지만 여성은 평생을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며 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석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문제를 본다면 나의 입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인 차이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기능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성기능에서의 차이를 인정한 대우는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성역할로서의 차별적 대우는 타당치 않다. 군대문제를 본다면 여성과 남성과의 차이로 구분지어진다고 보다는 국가적차원에서의 실익면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기능때문에 여성이 군대에 가는것이 국가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이므로 운영적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차이'를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차별'이라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 같은 능력으로 노동력을 행사했을때 왜 단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임금에서 차등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남자회원이 없는 정정현에서는 석순의 남자 회원 의견이 궁금해졌다.

정정현 :정정현에는 남자회원이 없기 때문에 석순에 있는 두 남성분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석순 :왜 정정현에는 남자가 없나요?

정정현 :저희는 석순에 남자가 있고 게다가 석순장이 남성이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정정현에서는 남성회원의 탈퇴로 회원유지가 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본인보다는 주위의 남성들에 의한 시선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석순 :저는 남성으로서 참 부담이 됩니다. 세미나에서도 토론을 하다보면 남자는 죽일X이고 여자는 다 옳다는 식이거든요. 군대문제에 있어서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라는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 즉 남성,여성에게 모두 있는 것이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에 여성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테마가 같은 공통분모와 다른 차이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인데 저는 왜 공통적인 면보다 차이라는 면을 부각시켜 생각하고 남성을 꼭 적으로 치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현 :남성이 여성의 적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여성해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해방이니까요.

여성과 남성이 그 가지고 있는 이름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평등하게 처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이 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성문제의 일차적 해결을 위해 우선은 남성을 배제할 수는 있는거 아닐까요?

우리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을 밀치자는 것이 아니라 또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대등하게 나가고 싶은겁니다. 남성들이 페미니스트를 잘못 바라보는 것중에 한가지라고 보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은 다 남성을 적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석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차별로 인식하고 다르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을 깨뜨리는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것에 관해서 다르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에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제가 너무 구체화되지 않아 주제를 잡고 넘어갔다.

정정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테마를 취급하면서 우리가 원하던 것은 여성문제가 공식적인 것으로 들어나기 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많이 간혀 있고, 나의 문제에서 공통적인 여성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게 되는데, 나의 문제로 간혀 있는 같지 않게 처우되는 점들 다르지만 같게 처우되는 점들을 밖으로 끌어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자형제가 있는 집안의 여성들은 이런 점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겠지요, 그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학교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같이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여성단체는 남자중심학생회의 부속기관인것처럼 느껴지거나 총학생회장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남녀공학에서는 없다는 사실들말입니다. 여성이 왜 늘 그렇게 주변인의 역할만을 가지게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해 보고 싶습니다.

--학형이라는 칭호에 관련하여 정정현과 석순의 의견들이 교환하였다.

정정현 :모권제 사회를 지향하는 페미니즘에서 사실 모권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토피아적인 가라는데에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면 모권제는 부권제를 대신한 또 하나의 세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석순에서는 학형의 줄임말인 형이라는 칭호를 굉장히 자주 쓰시는데 저는 남성적인 즉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주는 형이라는 말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웬지 남성적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석순 :석순에서는 형이라는 칭호를 선호합니다만 남성적인 것을 따라하려는 의도가 아닌 평

등한 칭호를 가지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적인 것을 배척하고 준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선호하는 측면은 비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비판에서 머물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비판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합니다.

정정현 :석순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점에서의 차이는 단지 모성기능 뿐이라고 딱 구분짓고 계시는 겁니까?

석순 :모성기능을 통해서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게 되고 남자가 바깥일을 담당하게 되었을때 이것이 계속 반복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여성이 맡은 일에서의 공통된 노동성격이 여성성이라 불리우게 되고 남성이 맡은 일로 인해 공통되게 나타내어지는 것들이 남성성이라고 인식되어지고 강요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태어나서 자기의 성향을 선택할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점에서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부장제이데올로기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억압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성기능에서만 차이를 인정하는데 지금 현상들은 모성기능에서 파생된 갖가지 분야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은 여성들안에서도 나타나는 차이인데 그런 차이들을 계속 말하고 만들어내면 차이라는 점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서 문제화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모성기능의 차이만을 얘기해야지 그 밖의 차이들을 거론하며 마치 그것이 당연한 차이인냥 말하여지게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정현 :그렇게 보자면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주의라든가 모권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성기능에서만 차이를 인정하자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부각시키자는 페미니즘은 모순적인 것이되고 맙니다. 사회적으로 터득한 여성성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점에서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이슈를 내놓은 것도 어디까지를 같게 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 즉 어디까지를 여성성으로 보고 남성성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 갈등을 풀어보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성기능을 차이라고 보면서 그 후의 인간적인 모든것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길 원하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여성적이게 그리고 남성적이게 길러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또 다시 페미니즘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르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 해답을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어떤지 알아보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대우문제 즉 사회제도적인 문제에서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 초점을 두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더 쉽게 여남평등을 얘기할 수 있고 더 쉽게 구분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군대나 쿼터제를 말해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제도적인 면에서의 얘기보단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나니 구분점을 찾기가 참 어렵군요. 그러나 서로의 생각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방대한 테마로 이야기거리를 잡아 좀 무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 덕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VI: 3월의 행사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 13회 한국여성대회가 3월 9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백주년기념관 로비에서부터 여성미술연구회에서 마련한 여성의 몸읽기 퍼포먼스, 회원단체의 열린마당 등과 같은 다양한 사전 행사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의 본행사도 진행되었다. 본행사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주부 풍물패인 단비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회 선언, 회원단체 기수 입장, 한국여성개발원 영상매체에서 제작한 비디오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창립 10주년 기념사와 대회사, 격려사, 축사도 빠뜨릴 수 없는 코스로 마련되었다. 여성운동의 바람직한 전형을 보여준 여성운동 선구자에게 부여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대안적인 여성언론매체인 여성신문사를 설립하여, 여성운동의 과제를 사회 여론화한 여성신문사 대표이사인 이계경 씨로 선정되었다. 이상의 관

례적인 행사 후에는 여성 노래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희망의 노래 「꽃다지」와 여성환경가수 안혜경 씨의 여성 노래 발표, 여성권익 걸림돌과 디딤돌 발표가 있었고 연극과 안치환, 전북여성농민노래단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특수한 민족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속에서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통일 여성해방을 목표로 한국여성운동의 나아갈 바를 밝힌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마련된 이 행사는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의 종류나 성격의 다양성,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인 여성 운동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여성 운동의 지향점을 모색하려는 내용상의 진지함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날, 그 하루 만큼은 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의 이름으로 여성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머리로 생각하고 여성의 입으로 참아왔던 말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 주체가 되어야 할 대다수의 여성들이 형식적인 행사의 들러리, 박수 부대의 역할에 가두어졌다. 3·8세계 여성의 날의, 인류, 특히 여성 공통의 참 가치를 기념하며 한국여성대회가 나름대로 새롭게 거듭 나기를 기대해 본다.



Ⅶ. 뒷싸투리

‘읽을거리’ - 게을러서(?) 준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한 이것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군.

정말 개강하자마자 내고 싶었는데..... 어쨌든 기쁘고...

성균관대학에는 여성문제를 다루는 언론매체인 정정현이 있다는걸 기억해주길... 아울러 관심과 호기심많은 ‘人’들의 발길을 기대한다!!

...텐버...

나를 잊을 수 있기 위해 나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찾는다. 별 보탬이 못되어 편집 후기를 쓰기가 민망하지만 열심히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이 머쓱함을 지우려다.

...品...

어떤 일을 끝내 놓고 나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미쳐버릴 것만 같다. 속상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무엇이 그리 바쁘다고, 무엇에 그리 쫓겨 산다고...

- 무명씨 -

히히히! 직접 읽을거리를 내보니까 정말 뿌듯하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자유의 행복감?!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인간해방을 위한 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 회야 -

별로 한일은 없이 정정현에서 죽치고,

있었으니 정정현 회원들에게 무지 미안하군. 앞으로 열심히 발벗고 뛰어서 인간

해방을 앞당겨야지

- 땃다! 박 -

우와 좋이다. 시원섭섭함.

그 많은 책들을 읽느냐고 킁킁 거린 밤들은 이젠 안녕.

정정현에 후배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거라. 이 언니의 따스한 손길(?)이 기대되지 않니?

-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밤에 회경 -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미안미안함!!! 바빴거든... 잘 할게!!!

.....